朝鮮後期 女子 日常服의 變遷에 관한 硏究

-實學者의 服飾觀과 風俗畫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양 숙 향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김 용 서

目 次

Ⅰ. 緖 言
Ⅱ. 朝鮮 後期 服飾 變遷의 時代的 背景
Ⅲ. 實學者의 服飾觀과 風俗畫에 나타난 女子 日常服의 變遷
1. 頭飾
2. 基本 服飾
Ⅳ. 結 語
參考文獻
ABSTRACT

Ⅰ. 緖 言

朝鮮 後期 服飾이 그 어느 시기의 服飾보다 硏究者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韓國服飾史에서 조선 후기 복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조선 후기 복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1] 그들의 연구 결과는 朝鮮 後期 服飾의 形態와 意味를 밝혀 내는데에 상당히 공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의 服飾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는 기존의 服飾 硏究가 대체로 朝鮮 社會의 支配層(官僚層) 服飾을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硏究結果는 당시 일부의 服飾에 局限되어 있어 宮室의 服飾이나 百官服을 제외한 日常服에 관한 硏究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服飾에는 一般 藝術 樣式에 있어서처럼 그 시대의 社會·文化的 環境이 반영된다.[2] 儀禮的인 복식보다 日常服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즉 그 시대의 文化的, 社會的, 思想的 현상이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朝鮮 後期의 思想界를 주도한 實學이 당시의 日常服에 영향을 주었음은 自明하다. 실제로, 實學者들이 추구한 實事求是, 利用厚生, 經世致用은 實用的, 現實的, 自律的인 의복의 착용을 주장하는 服飾觀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복식관이 일반인의 복식에 반영되었음을 보게 된다. 또한 實學者들의 思想은 朝鮮 後期 風俗畫에도 影響

1) 조선 후기 복식에 관하여 연구한 사람을 살펴 보면 趙孝順, 《朝鮮 後期 風俗史 硏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崔景順, 《英·正祖 時代 服飾 變遷에 관한 硏究》, 영남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林裁永, 《朝鮮 後期 服飾 發達의 要因 硏究》,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외에 다수가 있음.

2)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55.

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硏究는 實學者들의 服飾觀과 당시 生活史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風俗畫 속에 나타난 服飾의 着裝 狀態를 통하여 朝鮮 後期 女子 日常服의 變遷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實學者의 服飾觀이나 風俗畫를 통해 服飾의 槪括的 形態만을 알 수 있을뿐 構成 方法이나 縫製 技法 등 細部的 形態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본 硏究의 限界點이 있다.

Ⅱ. 朝鮮 後期 服飾 變遷의 時代的 背景

朝鮮 後期에는 네 번(임진 정유왜란과 병자 정묘호란)의 戰亂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戰後 復舊와 함께 傳統的 儒敎에서 비롯된 中華主義的 事大 慕華 思想이 흐트러지면서 지식층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 實學派가 擡頭되었으며 서민층의 경제가 성장 추세로 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服飾 文化도 급속도로 變化되었다. 특히 宮中 服飾이나 百官服 등의 복식보다는 日常服이 더욱 그러하였다. 일반 복식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던 主要 原因은 그동안 강조되었던 儒敎的 儀禮의 制約으로부터 벗어나 服飾의 自律性과 創造性을 찾았던데에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당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른 영향 중에서도 實學의 影響이 크다 하겠는데 실학자들은 사회의 不條理와 精神的 凝固 現狀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제기하면서 性理哲學的인 권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실학자들은 社會的 現實의 變遷을 直視하여 성리철학적 價値 秩序와 體系에 埋沒되지 않은 채 조선의 主體性을 먼저 確立코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西學과 淸 나라의 學術에 영향을 받아 實學者들은 民族 意識을 自覺하고 당시의 현실을 연구하여 利用厚生, 經世致用, 實事求是의 길을 강구함으로써 나라의 富強策을 세우고자 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우선 現實의 改革에 그 重點을 두었던 것으로 이해된다.[3]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돌리게 하였고, 實의 氣風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4] 이러한 현실성을 강조한 실학의 進步的인 면은 복식에 대해서도 응용될 수 있었다. 즉 사치 풍조와 윤리 의식의 解弛를 지적하는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사치 풍조 타개책으로 實用性을 강조하여 儉素하고 편리한 복장 즉 合理的인 복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實學은 朝鮮의 歷史, 文化, 地理 등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어 朝鮮 後期 畫壇에서도 朝鮮的인 畫風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朝鮮의 畫家들은 朝鮮의 現實에 대한 그들 나름의 認識과 評價를 그림에 投影하였던 것이다. 이에 朝鮮의 山川을 實在하는 그대로 表現하려는 眞景山水가 대두되었고, 庶民的인 모습의 生活 周邊을 파헤친 風俗畫가 유행하게 되었다. 백성들의 각종 삶에 얽힌 이야기와 표정,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 인간을 주제로 어느 회화 영역보다 조선인의 삶이 풍기는 멋과 향기, 諧謔美가 한껏 깃든 이때의 風俗畫는 당대의 신분, 복식, 생활 풍습의 변화 등을 소재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풍속화를 통해 당시의 社會相과 文化的 情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5] 바꾸어 말하면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는 金弘道, 金得臣, 申潤福 등의 風俗畫가 보여 주듯이 事實性과 時代性, 記錄性,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 共感과 感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朝鮮的 品位, 情趣, 詩情, 感覺美 같은 것이 內在되어 있다.[6] 특히 이 때에 유행했던 繪畫의 사

3) 尹絲淳, 〈實學의 發興과 思想史的 背景〉《韓國 思想의 深層 硏究》, 字石, pp.392~403. ; 崔景順, 전게논문, pp.4~5.
4) 금장태, 《한국실학사상연구》, 집문당, 1987, p.15.
5) 이태호, 《풍속화》(들), 대원사, 1996, pp.123~124.
6) 安輝濬, 〈韓國 風俗畫의 發達〉《韓國의 美, 19, 風俗畫》, 中央日報 季刊美術, 1991, p.168. ; 李東洲, 《우리 나라의 옛 그림》, 박영사, 1975, pp.208~209.

실 정신은 회화만이 갖는 독특한 표현성의 추구로 인하여 복식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료적 가치로서의 문제점과 한계성은 있겠으나 同時代 服裝形態를 비교적 정확하게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7]

Ⅲ. 實學者의 服飾觀과 風俗畫에 나타난 女子 日常服의 變遷

朝鮮的이면서도 儉素하고 實用的인 의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조선 후기 服飾의 變遷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實學者들의 服飾觀을 저서를 통해 고찰해 보면, 당시의 社會相과 문화 현상이 잘 드러나 있다. 더욱이 이들의 비판과 주장이 궁극적으로는 여타의 분야에서처럼 女子 日常服의 變遷에도 反影되어 나타난다.

1. 頭 飾

星湖 李瀷(1681~1763)은 柳馨遠의 실학 사상을 계승한 실학파의 中興祖이기도 하다. 그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고찰하되 實證的이고 批判的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學問은 실제 사회에 有用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만큼, 그의 복식관도 같은 경향을 띤다. 부녀자의 머리 장식이 지나칠 정도로 호화롭게 꾸미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머리털을 취함에있어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 가리지 않고 장식품을 만드니 불가한 짓이라며 이러한 장식은 사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실제(實用性)에 맞도록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8]

湛軒 洪大容(1731~1783)은 北學派인 朴趾源, 朴齊家, 李德懋, 柳得恭 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실학자이다. 그는 우리 나라 부인의 鬟髻와 의복제도가 夷俗을 따르고 있다고 하여 중화의 옛제도와 연혁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9] 그리고 검약하는 풍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복식의 개혁을 주장하였으며[10] 전통적 성리철학을 계승한 道學的 禮論家들이《朱子家禮》에 依據해서 복식을 착용해야 한다는 道學者의 敎條的 態度에 대하여 가장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1] 즉 편의에 따라 우리 나라의 풍속을 존중하는 現實性과 儉素性이 있어야 하되 自主的이고 獨創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은 北學派의 중심학자인 燕巖 朴趾源(1737~1805)도 形式的인 禮만을 주장하는 예론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동시에 백성을 넉넉히 하며 利用厚生할 수 있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12]

靑莊館 李德懋(1741~1793)는 당시에 가체머리의 성행 때문에 13세된 며느리가 다리에 눌려 목뼈가 부러질 정도였다며[13] 현실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여 시속에 따르되 사치를 숭상해서는 안된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五洲 李圭景(1788~?)은 여자들의 사치스러운 髮髻의 풍속과 윤리적인 폐단을 지적하였고 복식의 변화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며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보았다.[14]

큰머리 형태로 궁중 여인에게 한정되었던 가체

---

7) 이태호, 〈조선 후기 풍속화와 기록화에 나타난 연주 장면〉《한국학연구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pp.85~86)

8) 李瀷, 《星湖僿說》, 卷六, 萬物門, 皆粧.

9)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抗一 抗傳尺牘 與鐵橋書.

10) 洪大容, 上揭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11) 洪大容, 上揭書, 內集 卷三, 與人書 二首.

12) 朴趾源, 《熱河日記》, 口外異聞.

1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食.

1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東國婦女修飾辨證說.

는 부녀자가 성장할 때 덧드리는 다른 머리로써 조선 중기때 민간에 확대되었다.[15] 영조 32년(1756)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가체제도의 사치가 날로 심해져 부인이 한번 가체를 하려면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되었다.'라는 기록과[16] 또 정조 12년(1788) '처음에는 두발을 모으던 것이 중수의 꾸밈으로 이루어져 서로 다투어 크게 만들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사치스러운 자는 그 가산이 기울어지며 가난하고 궁색한 자는 인륜을 폐함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폐단이 극도에 달한 것이다.'라는 기록도 있다.[17] 그러나 이미 여인들 사이에 만연된 유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金弘道의 〈美人化粧〉과 申潤福의 〈端午風情〉(그림 1)에서처럼 커다란 加髢 머리 모습과 다리를 드리우고 있는 여인을 볼 수 있다. 劉運弘의 〈妓女〉와 19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작자미상의 〈미인도〉(그림 2)(해남 녹우당 소장)에 이르기까지 양손으로 받쳐들 정도로 극대화된 가체의 얹은머리 장식은 지속되었다. 이에서 보면 加髢로 인한 高髻의 奢侈가 얼마나 유행했는가를 짐작케한다. 여기서 高髻는 어디까지나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과장됨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극심한 고계 사치의 폐단에 대하여 많은 실학자들이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구한말 김준근의 〈醮禮〉(그림 3)에서처럼 낭자머리나 본발의 얹은머리 형태로 축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학자들이 주장한 바가 정책에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영·정조 때의 가체 금지가 이 때에 이르러서야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머리 장식이 간소화되어 기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유한 집의 일반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本髮로만 하는 낭자머리나 얹은 머리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풍속화 곳곳에서 다양한 쓰개류를 착용한 부녀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서민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身分 上昇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基本 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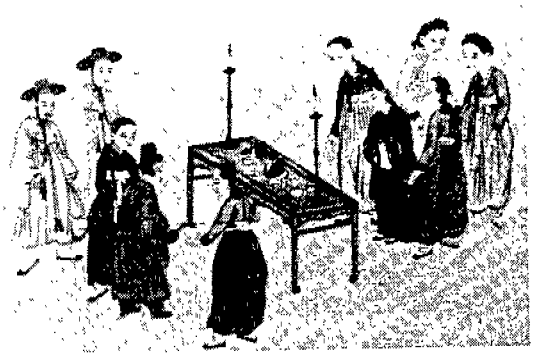
芝峯 李睟光(1563~1628)은 宣祖 때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진 學者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天主敎와 西洋 文物을 소개함으로써 實學 發展의 先驅者가 되었다. 그의 복식에 관한 글을 살펴 보면 복식제도의 정확한 근원을 알고 입을 것을 주장하며 착용되는 복식 중에서 오랑캐의 복제에 근원을 둔 것은 경시하고 중국 복제와의 유사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이익과 함께 혼란된 시대 상황하에서 복제의 규격을 세워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18] 또한 당시의 사회에 蔓延되었던 衣服 奢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비판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는 의복제도가 엄하여 大君의 妾일지라도 비단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의 혼란한 틈을 타 法制가 느슨해지자 서민이나 기녀까지도 紗羅綾緞을 입고 다녔다. 이것은 복식이란 끊임없는 변화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法制에 의해 금지할 수 없고, 時俗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그의 복식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19] 17세기 초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복식에 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추리케 한다.

이익은 당시 부녀자들은 소매가 좁고 길이가 짧은 저고리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 착

15) 김영숙, 『한국 복식사 사전』 민문고, 1988, p.7.
16) 『英祖實錄』 32年 1月.
17) 『正祖實錄』 12年 4月 辛卯.
18) 李睟光, 《芝峯類說》, 卷三, 君道部, 法禁., 卷二, 諸國部, 風俗.
19) 李睟光, 上扇書, 卷三, 君道部, 法禁.

(그림 1) 단오풍정

(그림 2) 미인도



(그림 3) 초 례

(그림 4) 채애도

용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신분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장 형태가 마치 鬼神이 입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녀자의 저고리는 중국의 복식 제도에도 없는 한시대 복식풍속으로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流行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그같은 유행하는 옷 가운데 여름에 입는 홑저고리의 길이가 치마와 닿는 곳이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좁고 짧았다.[20] 그리하여 사치를 금하고 검소와 절약으로 국가의 부강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그가 당시의 사치스러운 우리 나라 의복을 개혁하여야 하는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21] 또한 《受教輯錄》[22]과 《新補受教輯錄》[23]에는 각종 禁制들이 열거되어 있어 당

20) 李瀷, 《星湖僿說》, 卷十六, 人事門.
21) 李瀷, 《藉憂錄》, 生財.
22) 李瀷, 《受教輯錄》, 卷五, 刑典 禁制.
23) 李觀,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시의 복식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이익은 자신의 實學的 思想 核心과 잘 부합되는 素朴하고 儉素한 복식에 관한 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당시 복식에 있어서의 非實用的, 非經濟的, 그리고 지나친 奢侈化 경향 등을 비판하고 그 變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복식 풍조가 날로 奢侈化 됨을 신분 및 사회 질서의 혼란으로 보았으며 한편으론 시속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지만 素朴 儉素한 복고적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덕무는 博學多才하고 文章에 뛰어난 당시 四檢書官의 한 사람이자 北學을 제창한 실학자이다. 그런만큼 그의 복식관은 예복보다 실용성에 입각한 일반 복식 의견이 뚜렷하다. 그는 夷俗에 의한 부녀 복식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중화 복식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옛날에는 시집올 때 모든 옷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뒤 그것으로 小殮 때 사용하였지만 당시는 저고리가 너무 짧고 좁아 이러한 옷을 입으면 솔기가 터지고 팔을 폐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소매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血液循環이 제대로 않되어 팔이 부어올라 옷소매를 째고 벗게 됐다는 것이다.[24] 이것은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나머지 옷의 實用性을 잃어버린 것으로 사치를 배제하고 실용적 측면을 강구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양반층 부녀자들이 착용한 짧고 좁은 저고리와 풍성한 형태의 길고 넓은 치마는 妓女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남자들이 기녀들이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만을 생각하여 실용성이 없는 옷을 자신의 아내나 첩에게 권하여 입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그리하여 출입이 거의 없는 안방의 부녀자들도 이러한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25] 이는 당시 바깥 출입이 거의 없던 양반층 閨房 부녀자들의 복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그러나 박규수의 《거가잡복고》에서 보면 이 시대의 모든 부녀자가 단소화된 저고리를 입지는 않았던 것 같다. 또한 그는 적삼 끝의 开巾이 길고 넓으면 나태해지고 일하기에 불편하니 없애는 것이 좋으며 소매와 옷자락이 쓸데없이 길면 일하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고 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26]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儀禮的으로 착용하였던 의복에서 벗어나 實用的인 의복을 착용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복식에 있어서 실용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풍속과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27] 이는 당시 복식 풍조가 날로 사치화 되어 비실용적, 비경제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개탄하고 복식이란 實用性, 簡便性, 經濟性, 端雅美, 儉素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볼 수 있다.

楚亭 朴齊家(1750~?)는 朴趾源의 문인으로 北學派 출신 學者이다. 그의 학문 성향을 보면, 합리적 사고를 기초로 하여 청조 문화의 수용을 적극 주장 하였다. 그는 正祖 2년(1778) 謝恩使 蔡濟恭의 遂行員으로 淸 나라에 가서 그 곳 學者 李調元과 潘庭筠 등으로부터 새 학문을 배웠다. 귀국 후 그는 實事求是를 기본 사상으로 《北學議》 內·外篇을 저술하였는데 실생활의 기구와 시설 그리고 정치·사회 제도 등에 대한 개혁을 피력한 것이다. 그의 복식관은 《北學議》 內篇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남자의 의관은 옛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여자 복식은 元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당시 여자 옷의 짧은 저고리와 폭넓은 치마는 옛 蒙古의 복식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러한 복식은 禮法에 어긋난 것으로

2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食.
25) 上同.
26) 李德懋, 上揭書, 卷二十七·二十九, 士小節, 第一 士典一 服食.
27) 李德懋, 上揭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食.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28] 이와같은 그의 주장은 중국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禮의 바탕이 됨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모화사대주의 사상이 濃厚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緋緞 사용 금지를 지적, 검소한 생활의 무조건적인 실시는 역효과가 있다고 하여 합리적인 생활 자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29] 따라서 그는 복식에 있어서 검소해야 함을 주장하되 자신의 생활과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무조건 검소한 생활만을 강조하다 보면 국가 산업이 오히려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 하였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조선 후기 실학을 集大成한 학자이다. 그는 유형원과 이익의 학통을 계승하면서도 李珥의 성리철학적 실천 윤리와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北學派의 실학 사상을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정약용의 복식관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복식관을 대변해 준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는 당시 지방 관리 부인의 복식에 있어서 검약함을 요구하고 있다.[30] 한편으론 사회의 신분 계층 구별 수단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복식이었다는 것과 신분 제도의 문란으로 身分 意識의 解弛함과 더불어 하층(서민들)의 상층(양반들) 模倣 心理가 작용하면서 복식에 사치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검약함의 차원 뿐만 아니라 계층 의식에 바탕을 두고 제재를 가한 것이다. 즉 당시 신분 제도의 문란으로 의복의 사치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서민들은 옷감 절약을 위해 좁은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1] 또한 의복 사치로 인한 고급 직물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산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중국산 絹을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32] 이러한 사치는 당시 국가 경제력이 그만큼 성장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의복을 단순히 身體를 두르는 물건으로 보기보다는 착용자의 性格, 家風, 態度 등을 表出해 주는 象徵的인 것으로 간주한 듯하다. 그리하여 淸廉, 儉素한 복장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그들로부터 尊敬과 服從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33] 이처럼 정약용은 실학의 근본 사상인 실용성, 현실성, 검소성 등을 강조하고, 새롭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규경은 李德懋의 손자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은 채 할아버지가 이룩한 실학을 계승 집대성한 인물이다. 그는 우리 나라와 중국의 古今 事物에 대한 수백종에 달하는 저술들을 탐독하여 精密한 고증을 한 뒤 자신이 考訂 辨證을 하였다. 특히 그 내용 가운데에는 당시의 복식에 대하여 변증한 것이 많이 있다. 根源을 알지 못하고 착용되는 복식과 胡制에서 연유된 복식을 착용한 점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다. 중국 복제에 정확한 형태가 있을 경우 그것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속에 고정된 것은 그대로 遵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하여 進一步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34] 그리고 복식의 변화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유행 당시의 복식은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5] 그 밖에 털옷 종류의 보관법에서도[36] 실학의 利用厚生的인

28) 朴齊家, 《北學議》, 內篇 女服.
29) 朴齊家, 上揭書, 內篇 市井.
30) 丁若鏞, 《牧民心書》, 律己六條 齊家.
31) 丁若鏞, 《與猶堂全書》, 庶人服議.
32) 丁若鏞, 上揭書, 錢幣議.
33) 丁若鏞, 上揭書, 公服議.
3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十五, 笠制辨證說., 卷二十五, 毛向外辨證說.
35) 李圭景, 上揭書, 卷十五, 東國婦女修飾辨證說.
36) 李圭景, 上揭書, 卷二十二, 獸皮禽毛辨證說.

면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서보면 이규경은 어느 실학자보다도 중국 중심의 복식 제도에서 벗어나 獨自的이며 主體的인 服飾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이같은 복식관은 그의 저술 가운데 각종 복식에 관한 辨證說에 소상히 나타나 있다.[37]

尹斗緖 〈採艾圖〉(그림 4)에서 쑥을 캐는 여인들이 입은 저고리는 허리를 덮는 길이에 깃과 겉마기에 다른 색을 대었다. 품은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소매는 그리 넓지 않으며 걷어 올리기에 적당히 넉넉해 보인다. 그의 손자 윤용의 〈挾籠採春〉(그림 5)에서 여인이 입고 있는 저고리는 〈채애도〉에서 여인들이 입은 길이보다는 약간 더 짧은 듯하며 소매 역시 일하기에 편하도록 걷어올려져 있다. 趙榮祏의 〈바느질〉에 와서는 저고리 길이가 허리가 보일 정도로 짧아졌음을 볼 수 있는데 여밈끝이 겨드랑이에 까깝게 오면서 고름이 매어져 있고 몸에 적당히 맞는 것으로 보인다. 金弘道의 〈자리짜기〉와 金喜謙의 〈石泉閑遊圖〉에서는 저고리의 길이가 더욱 짧아져 가슴 부위에서 묶은 허리띠와 말기가 보이며 또한 소매폭도 좁아져 있다. 그리하여 깃, 섶이 小形化되었다. 그런데 기녀로 보이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양반가의 부녀자만 입을 수 있는 삼회장저고리가 보인다. 이것은 신분 관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申潤福의 〈端午風情〉(그림 1)에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아낙과 작자를 알 수 없는 〈미인도〉(그림 2)에서는 저고리 길이가 더욱 짧아져 젖가슴이 보이고 소매통이 아주 좁아져 있다.

이러한 저고리의 短小化 경향은 기녀의 복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저고리는 길이가 짧아 가슴을 덮지 못하는 위치에 이르며 품은 꼭 맞고 소매통은 매우 좁아 가냘픈 인상을 준다. 깃, 섶의 小形化와 함께 섶의 위치가 중앙으로 오며 옷고름은 위로 바짝 올라가 달려있어 목의 노출 부분이 거의 없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당시 실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李瀷은 부녀자 저고리의 단소화에 대하여 탄식하였다. 《增補文獻備考》와 李德懋의 《靑莊館全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당시 부녀자의 저고리 품이나 길이가 공공연한 비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현저히 단소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한 계층에서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저고리의 단소화와는 다른 형태의 저고리가 金弘道의 〈길쌈〉과 申潤福의 〈어물 장수〉에서 찾아진다. 아이를 업고서 며느리의 길쌈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저고리 착용 모습이 그렇다. 이들 그림에서는 저고리의 형태가 품도 넉넉하고 소매폭도 여유가 있어 보이며 길이도 허리를 덮는 형태로 착용되고 있다. 심지어 金弘道의 〈행상〉(그림 6)에서는 아이를 저고리 속에 업고 있는 모습도 있다. 아마도 아이를 업고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부인들의 특수한 복장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현재 착용하는 예복화된 여자한복은 노동을 하지 않는 양반가 부녀자와 기녀들이 입은 옷들만이 오늘에 변화 전승되었던 것이며 기능성과 활동성이 좋은 일반민들의 저고리는 도외시 된 채 점점 그 형태가 사라져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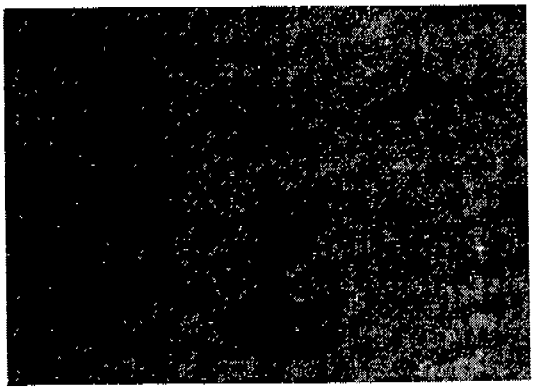
치마는 저고리와 함께 여자 복식의 기본을 이루는 우리 민족 복식으로서 조선 초 이래 별다른 변천 없이 전승되어 왔으나 여밈 방법 등에 있어서는 계층간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尹斗緖의 〈採艾圖〉(그림 4)에서의 치마는 허리에 주름이 잡혀있고 발목을 가리울 정도의 길이이며 폭은 활동하기 편한 정도이다. 치마자락을 앞으로 모아 허리춤에 끼워넣어 주름이 자연스럽게 드리워져 허리에서부터 약한 사선을 그리며 늘어져 있다. 이것은 美的인 것과 함께 쑥(艾) 이외의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자루대용으로 사

37) 李圭景, 上揭書, 卷四, 卷八, 卷十六, 卷十八, 卷十九, 卷三十, 卷三十四, 卷三十五, 卷三十七, 卷五十六 參照.

(그림 5) 협롱채춘

(그림 6) 행 상

(그림 7) 월하정인



(그림 8) 어촌귀가

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趙榮祏의 〈바느질〉에서는 허리에서 주름을 좀더 잡아 불룩하면서도 길이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윤용의 〈挾籠採春〉(그림 5)에서의 치마는 볼륨감이 있으며 〈채애도〉에서 앞으로 모은 치마자락을 여기서는 뒤로 모아 더욱 활동성을 보여준다. 작자미상의 〈회혼례도〉에서는 활동성과 실용성을 위해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리띠를 매고 있다.

한편 申潤福의 〈月下情人〉(그림 7)에 나오는 기녀들의 치마는 일반 서민녀의 치마보다 훨씬 길이가 길고 풍성하며 주름이 많이 잡혀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양반층의 부인도 전반적으로 李德懋의 《靑莊館全書》와 신윤복의 〈端午風情〉(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녀층과 같은 치마를 입었던 것 같다. 저고리 길이가 너무 짧아 드러나는 가슴의 맨살을 가리기 위해 치마말기 위를 가슴

가리개 띠로 묶고 있다. 그 외형선은 치마의 말기에 주름이 촘촘히 잡혀져 있는 치마자락을 끌어당겨 입음으로써 엉덩이 둘레를 불룩하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항아리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들치마의 시작은 주로 하층에서 보행할 때나 일할 때 긴 치마자락에서 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착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아름답고 간편하여 양반층에서도 행보 때 거들치마를 이용한 것이다. 치마자락의 끌어당김에 의해 길이는 자연히 짧아지게 되어 속옷이 노출되었으며 치마단이 무릎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치마자락을 날렵하게 휘어감아 허리띠로 매어주어 律動感을 연상하는 旋律의 曲線美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서 김준근의 그림 속에 있는 기녀들은 상당히 축소된 듯한 치마를 입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자를 알 수 없는 〈書堂〉에서는 치마자락을 뒤로 돌려 접고 띠로 묶거나 그 위로 '행주치마'를 두르기도 하였다. 행주치마는 여자들이 일할 때 치마의 거추장스러움과 더러워짐을 동시에 방지하기 위하여 치마 위에 입었던 노동복의 일종이다.

한편 치마의 일종으로 '두루치마'가 있었는데 金弘道의 〈占卦〉·〈우물가〉·〈漁村歸家〉(그림 8), 申潤福의 〈端午風情〉(그림 1)·〈문종심사〉·〈주사거배〉에 나오는 下屬層 등은 종아리가 보일 정도의 짧은 치마 즉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두루치'라는 것을 착용하고 있다. 두루치마는 양반층의 치마에 비해 길이도 짧고 폭도 좁아 속바지가 보이고 맵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기능적이었다. 반면에 양반층이나 기녀들의 치마는 길고 풍성하며 많은 주름이 잡혀져 있어 한껏 맵시와 품위가 난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치마는 그 구성 자체가 단순하지만 착장자의 방법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美를 표출하였다.

우리 옷의 기본형 가운데 하나인 바지는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남녀가 모두 입었다. 여자도 바지만을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 풍속화에서 바지는 치마 안에 입던 속옷으로서의 바지를 말한다. 尹斗緖의 〈採艾圖〉(그림 4), 윤용의 〈挾籠採春〉(그림 5), 金弘道의 〈빨래터〉·〈우물가〉·〈占卦〉, 申潤福의 〈月下情人〉(그림 7)·〈檢問〉(그림 9)·〈전모 쓴 여인〉 등에서 바지의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그림에서 보이는 치마 속의 바지는 부리가 좁고 老少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입혀졌다. 〈검문〉에서 여인이 단속곳 안에 입은 바지는 곱게 누벼져 있으며 부리가 매우 날렵하다. 서민층의 바지는 활동이나 작업에 적합한 정도의 폭으로 一字形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채애도〉에서의 바지는 그대로 내려 입었으며 〈협롱채춘〉에서의 바지는 종아리가 보일정도로 무릎아래에서 바지부리를 묶어 입었다. 그리고 金弘道의 〈행상〉에서는 여자가 바지에 행전을 친 경우도 보인다. 반면에 기녀들과 반가녀들의 바지는 상당히 관활하여 치마의 부풀림과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리는 가늘게하여 더욱 좁아 보이는 멋을 자아내게 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 당시까지만 해도 복식은 儒敎의 倫理觀에 立脚하여 明 나라의 복식을 踏襲한 것으로 대부분 儀禮服의 특성이 두드러졌고 백성들이 지나칠 정도로 복식을 奢侈스럽게 꾸미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이 결여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된다. 이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實事求是, 利用厚生, 經世致用에 의한 복식의 現實性, 便利性, 儉素性, 開放性과 함께 獨創性과 國俗化 내지는 自主化 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合理的, 實用的 衣生活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식으로의 전환을 기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실학자들의 복식관은 조선 후기 복식 문화가 自主性과 獨創性을 띤 조선적인 복식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에 들어와 실학자들은 朝鮮的 中和主義를 標榜하면서 복식의 自主的이고 獨創的인 방

(그림 9) 검 문

향에서 우리의 習俗에 따라 현실에 적응하여 形式的인 것보다 實際的인 衣生活 즉 복식을 개량하여 機能的이고 편리한 복식이 되도록 촉구하였던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傳統 服飾美가 이 시기에 完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이 때 着用者들의 美意識의 發露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美意識의 發露는 朝鮮의 傳統的 儒敎의 倫理的 美意識의 制約으로부터 벗어나 生活 속에서 機能的이면서도 아름다운 맵씨를 찾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시의 經濟的인 풍요로움이 결합되면서 自律的이고 獨創的이며 自主的인 服飾 文化를 자아내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Ⅳ. 結 語

朝鮮 後期에는 政治, 經濟, 文化, 思想, 藝術 등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복식 문화에 있어서 實用性, 便利性, 簡便性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頭飾에 있어 高髻가 간소한 형태인 본발의 얹은 머리나 北髻 형태로 변하였다. 이 때 고계가 실학자들의 辛辣한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은 첫째로 활동하기에 不便할 뿐만 아니라 實用性이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경제적 浪費로 보여졌고, 셋째로 禮儀에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쓰개류가 나타났던 것은 당시 서민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身分 上昇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內外法이나 외출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왔던 서민층 부녀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상승됨에 따라 기존의 양반층 부녀자들처럼 內外法을 지키고 외출을 삼가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왔던 행동에 갑자기 制約을 받게 되자 外的으로는 內外法을 지키면서 외출을 자유로이 하고 內的으로는 行動의 自由를 그대로 누리고자 한데서 다양한 쓰개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저고리는 극단적으로 短小化됨으로써 실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저고리 短小化의 主要因으로는 경제적 성장과 함께 그동안 傳統的인 儒敎의 倫理觀에서 벗어나 自身의 美를 表出하려는 欲求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勞動을 하였던 부녀자의 경우 활동에 필요한 機能性을 위해 품과 길이에 餘裕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치마의 형태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착장법이 다양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치마는 단순하게 구성된 의복이었던 반면 착용 분위기, 착용자의 審美的 狀態 등에 따라 다양한 美를 표출할 수 있었다.

바지의 경우에도 다양한 착장법이 나타났던 바, 기녀들과 반가녀의 바지는 상당히 관활하여 치마의 부풀림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리를 상대적으로 더욱 좁게하여 치마로 하여금 여유있는 멋을 자아내게도 하였다. 반면 서민층 부녀자들의 바지는 종아리 부위를 묶고 있는 것과 행전을 친 경우가 있었다.

朝鮮 後期 女子 日常服의 變遷 過程에서 이러한 形態 變化는 당시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던 實學者들의 思想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시대 정신이나 사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實學者들이 제시한 바 服飾에 대

한 批判과 改革의 意志는 즉각적으로 당시의 일반 복식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思想이 國俗化·簡素化·實用化되는 特徵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서서히 實際 日常服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한 時代의 思想이 服飾과 繪畫 등의 文化 遺産 속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時代의 服飾을 통해 당시의 사회 현상을 類推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服飾의 形態 變化는 그 時代의 諸般 社會相의 變化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착용하는 韓服은 朝鮮 後期에 이미 그 基本 形態가 이루어졌던 것이나, 우리의 衣生活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日常服으로 착용하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착용되는 禮服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韓服의 着用 頻度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며, 현대의 日常服으로 韓服이 適合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복이 오늘날 生活服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현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變形되어야 함은 사실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물론 여러 要因이 있겠으나 舊韓末 時代的 狀況과 곧 이어지는 日帝 侵略期 속에서 流入된 西洋 服飾에 主體的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朝鮮 後期 日常服 가운데 그 일부의 형태만 오늘에 傳承되어 이루어졌다는데 큰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韓服 硏究者들은 우리 民族의 固有 衣裳인 韓服의 價値를 再認識하고 조선 후기 복식의 아름다운 맵씨와 實用美 나아가 自律性과 創造性에 대하여 深度있는 연구와 아울러 後代에 傳承하려는 부단한 努力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관심과 애정을 촉구함으로써 우리 옷에 대한 自矜心을 살리고 생활 속의 옷으로 정착시켜 韓服의 底邊化와 世界化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야말로 傳統 文化를 올바르게 繼承하는 좋은 方向일 것이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琴基淑, 《朝鮮 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硏究》, 梨大大學院博士學位請求論文, 1987.
- 琴章泰, 《韓國哲學思想硏究》, 集文堂, 1987.
- 남궁윤선, 《朝鮮 後期 風俗畫의 畫風과 그에 나타난 服飾 硏究》, 성균관대학교, 1992.
- 朴京子, 〈蕙園 風俗畫에서 본 朝鮮 後期의 一般服飾〉《韓國 服飾 論攷》, 신구문화사, 1983.
- 박성실, 〈朝鮮 後期의 服飾 構造〉《第二十四回 東洋學學術會議講演 》, 1994.
-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교문사, 1982.
- 安輝濬, 《韓國繪畫史》, 一志社, 1993.
- 吳炳武, 《韓國 性理哲學의 特性에 關한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유봉학, 〈조선 후기 풍속화 변천의 사상사적 검토〉《간송문화》, XXI단원,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9.
- 유송옥, 〈出土 服飾 硏究〉《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柳喜卿, 《韓國服飾史硏究》, 梨花女大出版部, 1972.
- 尹絲淳, 〈實學의 發興과 思想史的 背景〉《韓國思想의 深層 硏究》, 宇石, 1985.
- 李東洲, 《韓國繪畫小史》, 瑞文堂, 1972.
- 李善宰, 《儒敎思想과 儀禮服》, 亞細亞文化史, 1992.
- 이주원, 〈平壤監司 歡迎圖의 服飾史的 考察〉《服飾》, 4號,1981.
- 李泰浩, 〈18,19세기 회화의 조선풍, 독창성, 사실정신〉《第二十四回 東洋學學術會議講演 》, 東洋學硏究所, 1994.
- _____, 《풍속화》(둘), 빛깔있는 책들 177, 대원사, 1996.
- 林裁永, 《朝鮮 後期 服飾 發達의 要因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鄭炳模, 《朝鮮 時代 後半期 風俗畫의 硏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 정혜경, 〈實學思想期의 服飾文化(Ⅰ)〉《韓國衣類學會誌》, 第16卷 2號, 1992.
- _____, 〈實學思想期의 服飾文化(Ⅱ)〉《韓國衣類學會誌》, 第18卷 1號, 1994.
- _____, 〈조선후기 실학파의 복식제도론〉《韓國衣類學會誌》, 第21卷 6號, 1997.
- 조규화, 〈服飾史學의 課題〉《服飾》, 제2호, 1978.
- 조효순, 〈거가잡복고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복식풍속〉《服飾》, 第15號, 1990.
- 崔景順, 《英·正祖 時代 服飾 變遷에 관한 硏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6.
- 홍나영, 《여성 쓰개의 역사》, 학연문화사, 1995
-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ABSTRACT

A Study on Ordinary Costume For Woman in the Late Choson Period

—Focused on Shilhak Scholars' Viewpoints on Costumes and Costumes in genre painting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stumes of the period covered in the writings of *Shilhak* (practical science) scholars and to research the history of costumes and their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how they are worn in genre paintings which are said to describe the actual life of the period. This should be studied in order to correctly establish the history of costumes. To begin with, through the writings of the representative *Shilhak* scholars who are thought to have affected the changes in ordinary costumes for woman, this study examined how ordinary woman of the period looked in their costumes and how they regarded various costumes they had. Then, how their viewpoints of costumes influenced ordinary costumes was investigated. Not only relics, but what was commonly worn, as they appeared in the genre painting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daily living of that period, were researched chronolog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hange in ordinary costumes for woman in the late Choson period was affected by *Shilhak* scholars who had ideologies of *Shilsakusi* (use of positive methods in studying), *Yiyonghusaeng* (the promotion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echonologies), and *Kyŏngsech'iyong* (pursuit of stability in a rural economy). Moreover, after those changes there were many more changes. However, the criticism of costumes of that time and the will of revolution affected a partial change in costumes, and after some time, costumes changed directly.

The forms of the costumes had been changed in a variety of ways following the tendencies of the times, but the origin of today's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had already been fixed in the late Choson period. Yet, today's hanbok are for special occasions, not worn as ordinary clothing. Thu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the *hanbok* is not suitable for daily life. One of the reasons is that Koreans could not cope with the western costumes independently imported during Japanese occupation in the last period of the Choson Dynasty and continuing the Japanese Colony. Thus, only a part of the ordinary costume of the late Choson period has remained until now.